Report of the IFLA Worldwide Seminar

國際圖書館協會聯盟大會 報告

◉開會式報告

Dia van Vliet-Posthuma
IFLA 事務局 行政部長

IFLA서울大會 開會式은 1976年 5月31日 (月曜日) 워커힐에서 시행되었다. Preben Kirkegaard IFLA 會長은 開會辭를 통해 훌륭한 大會組織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으며, 프로그램의 내용이 "圖書館專門職分野의 가장 새로운 趨勢와 發達"에 그 촛점을 두었다는 점을 들어, 이번 서울大會를 世界大會라고 칭했다. 또한 大韓民國政府가 이번 大會를 위한 財政的 支援을 통해 政府當局의 "圖書館에 대한 關心을 보여주었으며 韓國文化의 發達에 대한 그 責任을 실증하였을 뿐 만 아니라, 나아가 이번 世界大會를 통해 오늘날 全世界의 文化發展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사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Kirkegaard 聯盟會長의 開會辭에 이어, 韓國圖書館協會會長이며, 서울大會組織委員長인 李 瑄根 博士의 歡迎辭가 있었다. 그는 "이번 會議는 圖書館과 國家發展의 關係를 보다 깊고 넓게 하기 위한 諸問題가 眞摯하게 研究 討議될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精神文明에 있어서의 世界속의 東洋의 位置는 차츰 高調되고 認識되어가고" 있는 近者의 趨勢에 관해서 언급했다. 나아가 韓國에서 大會를 개최하게 된데 대해 韓國圖書館人들의 영광을 전했으며 "物心兩面으로 積極 協助하여주신 大韓民國政府當局에" 組織委員會의 감사의 인사를 보냈다.

이어서 崔 圭夏 大韓民國 國務總理의 致辭가 있었다. 그는 "國際圖書館協會聯盟이 創設된 以來, 「아시아」地域에서는 처음으로 韓國에서 大會를 갖게 된데 대해 祝賀"를 하였고, 국가발전에 있어서 圖書館人의 役割과 圖書館의 機能은 매우 중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어떤 知識을 어떻게 蒐集하여 蓄積하고 또 效果的으로 使用하느냐는 人類發展을 크게 左右" 하며 "圖書館은 大衆의 學校와 같은 機能을 맡기도 하여 知識의 大衆化의 直接的인 寄與"를 하고 있다고 그의 의견을 밝혔다. 따라서 "이 分野의 國際的인 開放을 通하여 各國이 緊密히 相互協力함으로써 한 나라의 發展은 勿論, 文化的 交流를 通하여 人類의 文化發展과 生活向上에도 貢獻"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하여 생기는 언어장애와 같은 많은 문제들은 IFLA를 통한 "相互理解와 國際間協力을 通하여 하나하나 解決해 나가야 할 課題"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圖書文化의 오랜 전통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언급한 후, "韓國民의 努力은 世界文化의 交流와 協力에도 寄與하고 있다고 確信하며, 그런가운데 國際圖書館協會聯盟을 通한 여러분의 活動과도 더욱 깊은 紐帶를 맺어가기를 期待" 하면서 國務總理 致辭를 끝맺었다.

잠깐 休會한 후에, Peter Havard-Williams 聯盟副會長의 基調演說이 있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모든 市民은 그가 서민이거나, 기술자, 경제학자, 과학자이거나 간에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情報가 필요하다. 情報는 國家資源이며, 미국의 경우 國民總生産(GNP)의 40%에 해당된다. 情報는 연간 12.5%라는 빠른 속도로 팽창되고 있으며, 이를 다루는 기관을 調整하고 相互協同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하겠다. 어떠한 情報든지간에 그 토대는 圖書館, 情報센터 및 古文書館을 포함한 情報奉仕機構에 두고 있다. 저자 그리고 출판자, 과학자 역시 文獻情報機構의 일부분이다. 저자와 독자의 관계처럼, 도서관은 책과 독자, 과학자, 공학자 그밖에 다른 전문직인의 관계에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이다."

"개발도상국에서는 특수도서관이 가장 발달하였고, 그 다음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의 순이다. 필요한 情報를 제공하는 情報奉仕機構는 경제, 정치, 과학, 교육, 사회 및 문화분야에서 국가의 최대이익을 위해 종사하는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1974년 9월 파리에서 열렸던 國家情報體制(NATIS)에 관한 유네스코 政府間會議에서 情報를 공급받는 사회의 중요성

을 강조한 내용이다. 정보의 역할이 비대해짐에 따라 도서, 전문잡지, 보고서, 특허, 마이크로자료 및 필림을 제공하는 능률적인 도서관의 중요성도 커진다. 따라서 젊고 명석하며, 지성면에서 기민하고 정서면에서 균형잡힌, 자격과 경영의 능력을 겸비한 圖書館 및 情報要員의 필요성 또한 다대한 것이다. 그리고 균형잡힌 圖書館所藏資料와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建物의 필요성도 커진다. 현대의 圖書館網開發은 가장 작은 비용으로 대중의 평생교육을 담당한 기관인 국가적 공공도서관 체제위에 확립되어야 한다. 활기있고 생기에 넘치는 민주주의는 모든 사상에 대한 일반대중의 이용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현대적인 國家情報奉仕機構를 설립하는 데에는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하며, 이것은 경비를 현명하게 관리할 좋은 職員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훌륭한 情報體制의 경우, 3,500만 내지 4,000만 인구를 가진 국가는 산업, 국립, 정부도서관을 제외한 공공 및 대학도서관에 약 2억불(1,000억원)의 경비를 배당하여야 한다. 이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끝으로 IFLA創立 50周年大會 組織委員會 代表委員 F. Vanwijngaerden이 약 3,000명의 각국대표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1977년 9월 1일부터 10일까지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열릴 차기대회에, 서울大會에 참가한 모든 대표들을 초청했다. 그는 브뤼셀大會의 프로그램을 설명하였으며, 主題는 "Libraries for All: One World of Culture, Information and Learning"이며 副主題는 "Libraries meet with their users in……"이라고 발표한 후 도서계, 기업, 상공업 등 관련된 6개분야를 소개했다. 그리고 최종회의의 主題는 "Reading for Pleasure" 임을 발표했다. 그밖에 질의사항은 브뤼셀大會組織委員會나 IFLA本部에 문의하도록 안내를 했다.

이어서 朴 啓弘 프로그램擔當 組織委員이 이번 大會의 프로그램과 관계되는 공지사항을 발표했다.

끝으로, Kirkegaard 聯盟會長이 11시 30분 開會式이 끝났음을 선언했다.

◉全體會議 I 報告

國家發展에 있어서의 圖書館의 役割

의장 : P. Havard-Williams
서기 : 김 중 한

Havard-Williams의장은 전체회의 I을 시작하기에 앞서, 國家情報奉仕機構는 일반적으로 현대 과학기술사회안에 설립되어야 하며, 이번 大會에서 자세히 토의할 사항인 目錄 및 書誌와 같은 情報奉仕機構의 기술적인 면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며, 전문가이거나 아니거나 간에 圖書館利用者가 圖書館資源을 이용하는 것을 돕는 수단이 되어야 할 것이며, 또 圖書館人과 出版者는 모두 같은 목적을 위해 봉사하고 있으므로 서로 충돌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건의하였다.

泰國國立圖書館長 Maenmas Chavalit 여사가 그녀의 논문 "開發途上國에 있어서의 國家圖書館體制 計劃可能性과 實踐性"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그녀는 개발도상국의 도서관발전에 내포된 공통적인 저해요인으로 貧困, 높은 文盲率, 낮은 수준의 科學技術 敎育 및 發達, 資金不足, 資格을 갖춘 要員不足, 圖書館職員의 熱意와 創意性 결핍, 圖書館施設의 貧弱을 지적했다. 그리고 自國語資料의 不足과 多言語使用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한다고 했다. 덧붙여서, 도서관의 유형별로 볼 때에 일반적으로 적절한 자체내의 行政 및 調整이 결핍되어 있음을 내면적인 문제로 지적하였다.

태국의 경우, 國家圖書館體制計劃에 國家情報體制(NATIS) 개념을 도입하였다. NATIS개념은 유네스코 政府間會議(Unesco Intergovernmental Conference)에서 회원국이 취할 國家的 行動을 안출하여 12개의 목적에 동의를 얻음으로써 규정되었다. 이 목적은 다시 쟈카르타에서 열린 제3차 東南亞圖書館人大會(CONSAL Ⅲ)에서 채택되었다.

實行段階에 있어서, 實踐計劃書에는 반드시 計劃修行의 책임과 권한을 지닌 中央機關(들)을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Chavalit여사의 논문요지는 아래와 같다.

(1) 努力과 資源의 중복을 피한다.
(2) 계획된 일 전부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으므로 優先順位를 정한다.
(3) 圖書館과 도큐멘테이션 센터를 통합하며, 情報網조직을 피한다.

(4) 전문가와 일반독자를 포함한 모든 사회계층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圖書館奉仕를 통합한다. 예를 들어서, 가장 실질적인 해결책으로는 자료의 共同收書, 기존장서에 대한 대한 利用擴大, 自國語圖書의 풍부한 공급 등이 있다.

질문(의장) : 會議場에 있는 대표들이 질문을 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議長이 질문을 던졌다. "서구의 우편업무는 썩 훌륭한 것이 못됩니다. 그런데 개발도상국에서의 우편은 불확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사용해야하는 圖書館相互貸借는 얼마만큼 실용적입니까?"

대답(Chavalit) : 도서관인이 우편업무를 개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견디어야 될 것 같읍니다. 왜냐하면 책을 우송하는 것보다는 寫眞複寫資料를 보내는 편이 실질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발표자는 말레이지아대표 Donald E. K. Wijasuriya 씨로서 논문제목은 "말레이지아의 公共圖書館發展計劃——計劃에서 現在까지"이었다. 이 논문은 公共圖書館發展計劃에 대한 말레이지아의 경험에 관한 것으로, 이에 대한 그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1969년 國家圖書館委員會(National Library Committee)는 公共圖書館發展을 위한 計劃을 수립하여 내각에 제출, 인가를 받았다. 이에 대한 그의 제의사항은 (1) 13개 州에 각각 國立中央圖書館의 設置, (2) 圖書館發展 5個年計劃 樹立을 위한 基金設置, (3) 각 州에 의한 州別 5個年發展計劃의 樹立, (4) 각 州에 의한 州別 圖書館法 制定, (5) 각 州의 公共圖書館 奉仕를 위한 州別 公共圖書館法人設置이다. 이 계획은 中央集中을 배제함으로써, 각 주가 州別 計劃을 수립하고 그 財務를 관리하도록 하며, 公共圖書館 奉仕指針을 정하고 이를 修行할 機構를 설립하도록 한다. 한편, 國立圖書館은 計劃修行業務를 中央調整하고 公共圖書館奉仕를 改善하는 역할을 한다. Wijasuriya 씨는 現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財政 : 공공도서관봉사를 위해 州政府에 적절한 재정적 처리를 위탁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도서관건물에 대한 융자를 비롯해서 가능한 모든 財源을 발견, 확보해야 한다.

職員 : 직원배치는 적절히 시행되고 있다. 현재 일개 圖書館學校에서 2年 敎育후에 卒業狀을 주고 있다. 그 내용은 영국과 호주의 檢定基準을 따르고 있다. 많은 졸업생들이 보다 더 높은 수준의 專門訓練을 받기 위해 주로 영국이나 호주에 간다.

藏書 : 장서를 보관할 建物計劃에 대한 열의는 대단한 것이었다. 교육정도가 낮은 사람 나아가 문맹자에게 봉사할 資料에 대해 보다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

奉仕 : 현재 공공도서관은 無料奉仕를 하고 있다. 2개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移動圖書館奉仕가 지방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不具者를 위한 봉사도 실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대규모 住宅建設計劃에 圖書館施設이 포함되어야 하겠다.

질문(W. Tsuneishi, 미국): "도서관이 稅金의 공정한 할당을 얻기 위해, 어떻게 도서관인이 정부관리를 설득하여 공공도서관봉사를 위한 적절한 재정적 지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Chavalit): 좋은 奉仕가 그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관리와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물론, 도서관봉사를 요구하고 감사할 줄 알며 나아가 만족스러운 봉사를 얻지 못할 때 이것을 강력하게 표시할 수 있는 學生들에게 좋은 奉仕를 제공함으로써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學生들의 發言은 중요한 것입니다. 대중은 신문에 그들의 불평을 실으며 정부는 이러한 비평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귀를 기울입니다.

대답(Wijasuriya) : 이러한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독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킴은 물론, 정치 및 재정적 의사결정을 담당한 관리를 圖書館委員會의 長으로 위촉한다든지 해서 그들의 이해를 구할 수도 있읍니다. 예를 들면, 이전에 聯邦財務委員會長(Director of the Federal Treasury)이 有職委員이었던 적이 있읍니다. 또 良質의 봉사는 예산증액 없이도 이루어 질 수 있으며,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이 최대한도로 이용되게끔 資源調整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을 행정관리들에게 실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질문(J. Dipeolu, 나이제리아) : "國立圖書館委員會와 大學校의 관계 및 협동은 어떠합니까?

대답(Wijasuriya): 1974년 NATIS에 이어, 準備委員會가 조직되었는데, 국무장관(Chief Secretary) 이 위원장이며, 그밖에 내각의 대표, 대학교 및 기타 기관의 대표들이 참석합니다. 1975년 다섯 개의 대학도서관과 국립도서관이 주축이 되어 圖書館網을 이루는 파일럿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는데, 새로운 과학기술로

인해서 이 網에 결속할 필요성을 느끼거나 경제적인 이유에서 여기에 참가하거나 혹은 이러한 협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도서관은 후에 참가할 수 있게 기회를 열어놓았읍니다.

세번째 발표자는 한국대표로서 梨花女子大學校圖書館長 李 鳳順 교수였다. 발표논문은 "韓國圖書館發展計劃——過去, 現在 및 未來를 爲한 計劃" 이었다. 여기에서는, 印刷術, 製紙術, 古代王室文庫, 寺刹文庫, 敎育機關 및 政府文書保管圖書館에 관한 자랑할 만한 한국의 역사적 배경을 광범위하게 다루었다. 그리고 1955년도와 1974년도의 圖書館統計를 비교, 숫자상의 증가를 설명했다. 학교도서관의 숫적 증가는 실로 굉장한 것이며, 그다음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의 순으로 양적 증가를 보여 주었다. 韓國圖書館協會는 韓國圖書館發展5個年計劃에 착수하였으며, 이 계획의 주요 構案者인 張一世씨가 여기에 대해 자세하게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뜻하지않은 그의 逝去로 그의 논문발표를 듣지 못하게 되었다. 그대신 李 鳳順 교수가 이 계획에 대한 그녀의 의견을 발표했다. 이 계획이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즉,

(1) 정부와 국민에게 圖書館奉仕를 알리는 동시에, 누구나 다같이 이용할 수 있으며 日常生活에 영향을 미치는 도서관봉사에서 얻을 수 있는 잠재적 및 실질적 利得이 무엇인가를 알린다.

(2) 도서관 및 도서관운영자를 위한 圖書館訓練을 진흥, 향상시킨다. 사서는 책을 분류하고 편목하는 技術者라는 일반적인 인식에서 탈피하여 知識情報의 提供者로서 敎育을 담당하는 圖書館人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는 것 이외에도 大學圖書館司書의 地位를 대학(교)교수와 동등하게 향상시킬 점, 司書敎師의 資格을 교사와 동등하게 진전시킬 점, 어린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大衆의 중요한 敎育機關으로서의 도서관의 역할을 개선시킬 점 등이 포함된다.

(3) 讀書와 圖書館利用을 장려시킬 박력있는 弘報活動프로그램을 개발한다.

(4) 산업체 및 기업체에 봉사할 特殊圖書館을 개발한다.

(5) 전문적인 도서관敎育과 訓練은 利用者中心의 奉仕와 현대 도서관運營 및 管理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司書와 圖書館學徒들을 위한 專門書籍의 강화 필요성을 대두시킨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록이나 만드는 사람"이라는 사서의 전부한 자화상에서 탈피하는 것이다.

李교수는 圖書館奉仕는 國家發展에 필수적이며, 그 이유는 도서관이 國家發展目的에 합치하여 그 노력을 경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맺었다.

질문(K. Lo, 미국) : "좋아질지 나빠질지 모르는 未來에 대한 도서관인의 책임은 어떠한 것입니까?"

대답(의장) :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며 세계의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最善을 다해서 最高의 要員을 뽑아 대중에게 最高의 奉仕를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 도서관인들은 정부에서 돈을 얻는 데에는 너무나 내성적이며 또 기술적인 면에는 지나친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읍니다. 우리는 大衆에게 奉仕하기 위해서는 册 훨씬 넘어 그 以上을 보아야 합니다."

대답(Chavalit):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준비가 썩 잘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읍니다. 우리는 젊은 세대에게 도서관봉사를 통해서 文化의 가치, 餘暇善用의 가치 등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번째 발표논문은 하와이大學의 Yukihisa Suzuk 교수의 "多言語 및 多人種社會에 있어서의 司書 및 圖書館利用者의 敎育"이었다. 이 논문의 기본전제는 多人種 및 多文化 社會 혹은 環境에 있어서의 각 人種集團은 정신적 문화적 유산을 간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人種文化에 대한 존경은 多人種文化의 민주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는 뜻이다. Suzuki 교수의 논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소수집단을 위한 도서관봉사에는 自國語로 쓰인 자료가 필요하다. 그런데 출판업자들은 이러한 집단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기 때문에 自國語資料의 出版은 흔히 무시되어 왔다. 이러한 무감각 내지 편견은 출판물에 나타난 소수인종에 대한 부정확하고 부적절한 묘사에서 찾을 수 있다. 다행히도 소수집단에 의한 소규모출판사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경영난을 겪고 있으나, 잘 되고 있는 출판사도 몇몇이 있다.

Suzuki 교수는 하와이大學의 아시안 라이브라리안쉽이라는 과목과 文化相互理解를 증진시키기 위한 聯邦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다른 人種文化에 대한 尊敬은 인종특성이나 배경을 낭만화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과장하는 것도 아니며, 또 모자이크式 사회를 창조하는 것도 아님을 강조했다.

질문(G. Kirby, 호주) : "이번 회의에서 처음 발표자 세 분은 圖書館 奉仕에 있어서 각기 그들 나라에 국제적 기준을 導入한 經驗을 소개하였으며, 마지막 발표자는 小數集團의 문제와 圖書館利用者에 대한 感受性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읍니다. 발표자중에서 누구든지 國際基準 및 體制를 쉽게 적응할 수 없는 문화위에 놓음으로써 생기는 문제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겠읍니까?"

대답(Wijasuriya): "외국에서 전문훈련을 받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부딪치는 문제로는, 첫째, 그들이 최신기술과 체제에 익숙해져서 그 地域與件에 쉽사리 적응할 수 없다는 점과, 둘째, 개발도상국은 최신체제를 그대로 도입할 수 없으므로 지역여건에 맞게 再調整 혹은 修正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적합한 훈련을 받을 만큼 오래 외국에 머물되 개발도상국 여건에 맞지 않게 될 만큼 너무 오래 외국에 있어서는 안되겠읍니다."

대답(Suzuki):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소수집단에게 봉사한 경험이 도움이 될 것 같읍니다. 사서는 小數集團에 敏感하도록 訓練될 수 있고 또 이러한 사서는 地域要求에 쉽게 적용할 수 없는 기준이나 체제를 융통성있게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답(의장) : "전문서적의 대부분이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基準이 아니라 言語입니다. 사서나 교육자들은 단일수준의 司書職, 그리고 똑같은 敎育, 資格에만 골몰하는 듯 합니다. 우리는 單一敎育水準의 사서가 아닌 여러 종류의 사서를 배출해야 합니다. 기준을 강요하는 것만이 전문사서를 양성하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 다른 형태의 도서관일에 대해 기준에 의한 學校訓練을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우리에게는 圖書館作業의 현실적인 區分이 필요합니다."

●全體會議 II 報告

出版과 出版物——東西出版傳統의 比較

의장 : G. Pflug
서기 : 노 옥 순

첫번째 발표논문은 "19世年末까지의 東洋出版의 특성——韓國 李王朝時代의 出版物을 中心으로"로서, 성균관대학교 도서관학과 李 春熙 교수가 발표했다.

질문(G.Pflug, 독일) : "구라파이외의 지역에서 國際標準書誌記述法 (ISBD) 같은 국제기준을 사용하는데 따르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英美目錄規則 (AACR), MARC, ISBD 등과 같은 기준을 해석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답(D. Anderson, 영국) : "문제는 이러한 국제기준이 영국 혹은 유럽지역의 言語와 文化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유럽이외의 지역에서는 修正해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Dipeolu): "개발도상국에서는 AACR이나 MARC 같은 것에 너무 의존하기 때문에 자기나라나름의 編目方法을 만들 기회를 놓치는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대답(의장) : "여기에 관한 문제는 다음 회기에서 토의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질문(T.H. Lee, 미국) : 모든 나라의 經驗을 토대로 해서 基準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논평을 구했다.

대답(Chavalit): "태국에서는 姓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만일 AACR을 수정없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커다란 문제에 봉착할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DDC에는 태국주제의 類가 불충분합니다. 영어로 된 主題名標目表 역시 範疇가 불충분하므로 같은 문제를 던져줍니다. 때문에 태국도서관을 위한 主題名標目을 작성하며 태국인명에 사용할 수 있게끔 目錄規則을 수정, 편찬하는 위원회를 두고 있읍니다."

대답(李 鳳順) : 국제기준을 한국도서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같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한 논평이나 토의는 없었다.

두번째 발표자는 호주국립대학교도서관동양자료부장 Enid Bishop 여사가 "濠洲에 있어서의 東洋資料의 蒐集"을 발표했다.

논평 : William Ju 대만국립도서관장은 가장 어려운 점은 言語 문제보다는 大衆, 出版者, 디일러 등의 취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축차간행물 디일러와 출판자는 重刷本이나 稀覯書의 마이크로자료를 출판하는데 외국에서도 이것을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대만국립도서관에서는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稀覯漢籍을 마이크로자료화하여 누구든지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수집코자하는 도서관은 이것을 살 수 있으며, 가격이 높지 않으므로 繼續注文도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질문 : 하와이대학 Yukihisa Suzuki 교수는 "동양자료를 受入 및 擔當할 숙련직원을 어떻게 채용합니까?"고 물었다.

대답 : Bishop 여사는 숙련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처소와 방법은 적지 않다고 했다. 예를 들자면, 中國語 資料를 담당할 직원 두 명을 홍콩과 대만에서부터 채용했으며, 또 다른 한 사람은 런던대학에서 연수받은 자격있는 직원이라고 대답했다.

질문 : 국립대만사범대학교 Margaret Fung 교수는 "자유중국의 圖書輸出制限은 어떠합니까?"고 물었다.

대답 : Bishop 여사는 輸入코자하는 도서자료 전부가 그렇지는 않으나 간혹 매우 구하기 힘든 자료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것이 가장 필요한 자료일 때가 있다고 대답했다.

Fung 교수는 이에 대해, 지난 20년간 中國出版業은 급격히 발전했으며 특히 中國古典의 출판은 절정에 달하고 있다는 점과, 정부에서는 輸出制限을 대폭 철회하였으며, 작년도 出版物輸出은 圖書, 新聞, 定期刊行物, 音盤, 錄音테이프를 포함하여 5백만건 이상에 달했음을 소개했다.

논평 : 뱅쿠버 소재 British Columbia 대학도서관의 J. M. Elrod 씨는 많은 한국인사서는 韓國語, 漢文 및 日本語 資料를 다룰 줄 안다고 언급했다.

세번째 발표논문은 미국의회도서관 동양자료부장 Warren Tsuneishi 의 "美國에 있어서의 東洋資料의 蒐集"이었다.

논평 : Elrod 씨는 LC 카아드를 구할 수 없거나 주문한 LC 카아드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다른 도서관들과 같이 東洋資料의 書名記入카아드를 작성하는 예를 들었다.

질문 : 일본의회도서관에 있는 Heihachiro Suzuki 씨는 동양사서가 외국에서의 東洋資料蒐集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대답 : Bishop 여사는 政府刊行物의 書誌統制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논평 : Saad M. El-Hagrassy 씨는 카이로에 있는 에집트의회도서관에서는 書誌情報를 제공하며 資料蒐集에 협조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네번째 발표자는 영국국립도서관의 Geoffrey E. Marrison 씨로서 그가 발표한 논문제목은 "英國國立圖書館의 東洋資料蒐集을 위한 交換計劃"이었다.

질문 : 한국대표 申씨는 미국의 도서관에서는 政府刊行物의 情報를 대체로 *Monthly Catalog*에서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국에서는 한국으로부터의 交換資料를 어떻게 수집하고 있는가 물었다.

대답 : Marrison 씨는 영국국립도서관에서는 韓國國會圖書館에서 보내주는 자료와, 國立中央圖書館, 國立博物館 및 6개 大學圖書館과의 交換을 통해서 얻고 있다고 했다.

다섯번째 논문은 "獨逸에 있어서의 東洋資料蒐集"으로서 서백림도서관의 Rainier Krempien 씨가 발표했다.

질문 : Gordon Kirby 호주대표는 東西 兩獨간의 協同에 대해서 질문했다.

대답 : Krempien 씨는 圖書館相互協同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대답했다.

논평 : Candida Agcaoili 필리핀대표는 東洋資料를 위

한 클리어링하우스의 設置可能性 여부를 물었다. 書誌道具를 만들어 한데 모아서 학술 및 연구도서관의 資料共同蒐集과 동양자료의 綜合目錄出版의 노력을 장려할 필요가 있으며 동양자료의 현명한 활용을 위해 클리어링하우스는 필요하다고 제의했다.

논평 : Tsuneishi씨는 클리어링하우스의 설치는 보다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主題別 또는 分野別 등에 의한 일련의 클리어링하우스가 필요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圖書館網(network)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후, 대부분의 국가가 자금부족을 겪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논평 : 미국 와싱턴대학교도서관의 Karl Lo씨는 미국은 東洋資料를 "開發" 시켜야 하기 때문에 동양자료의 관점에서 볼 때 "開發途上國"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논평 : H. Suzuki 일본대표는 日本政府刊行物은 주로 出版業者에 의해 출판되므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전제한 후, 주요 정부간행물을 마이크로필림화하여 그 목록을 외국에 보내도록 제안했으나 재무성이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했다.

논평 : Tsuneishi씨는 政府에 의한 마이크로資料出版은 印刷資料보다 값이 싸고 부피가 작으므로, 따라서 해결책은 마이크로資料出版計劃에 있다고 했다.

◉專門會議 A 報告

東洋出版物의 書誌統制——國家書誌의 役割

의장 : Warren M. Tsuneishi
서기 : D. E. K. Wijasuriya

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각 논문이 끝난 다음 발표된 논문에 대해 잠시 토의를 했으며, 회의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일반토의를 가졌다. 발표된 논문과 주제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1. 世界書誌統制(UBC)와 國家書誌——國家書誌 作成을 위한 標準. Dorothy Anderson(영국)
2. 東南亞細亞諸國의 國家書誌作成의 調査結果報告. Marina G. Dayrit (필리핀)
3. 韓國·中國 및 日本의 文獻統制現況. 具 滋榮(한국)
4. 多言語出版物을 위한 國家書誌作成의 實際 分析. E.D.T. Kularatne (스리랑카)

그리고, 위에 적은 주제발표 다음에 토의된 사항은 크게 나누어 아래와 같다.

(1) 國家書誌——範圍 및 必要性
(2) 基準과 東洋에서의 적용
(3) 1977년 國家書誌大會開催計劃

(1) 國家書誌——範圍 및 必要性

會議場에서부터 많은 질문과 논평이 광범위하게 나왔다. 필리핀대표는 팜플렛자료가 국가서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질의하면서, 석사 및 박사 學位論文도 포함될 수 있는 자료라고 덧붙였다. 미국대표는 국가서지의 定義에 대해서 물으면서 같은 질문을 보다 더 근본적인 측면에서 물었다. 이에 대해 Anderson여사는 國家書誌에 어떠한 資料가 포함되며 또 제외되는가는 國家書誌를 編纂하는 機關에 달려있다고 대답했다. 國家書誌는 特定國家內에서 출판된 모든 出版物의 全體記錄이라고 알고 있으며, 이 용어는 넓게 해석되고 있다고 했다. 자료의 범위를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그녀는 5개 동남아국가의 국가서지에 포함된 자료를 실은 Dayrit의 論文附錄을 예로 들었다. 아울러 1977년 國家書誌大會에서 발표된 논문들이 國家書誌에 포함될 資料를 優先順位順으로 파악케 해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러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약 30종류의 資料類型이 國家書誌에 포함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나, 優先順位順 資料一覽表에서는 포함될 資料의 範圍를 제한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대표는 Dayrit논문을 인용, 특히 국가서지출판에 영향을 주는 環境要因에 대해서 질문했다. 그는 국가서지가 그 나라의 절실한 要求를 만족시키는지의 여부를 물었다. 演壇의 주제논문발표자들은 국가서지가 그 나라의 절실한 요구를 만족시킨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문화유산과 그 기록을 점차 중요시하는 추세에 비추어, 이러한 자료의 蒐集, 保管 및 情報要求는 국가서지가 필연적이고 필수적인 존재임을 잘 말해주고 있

다고 지적했다.

독일대표가 국서지가 없는 경우 出版目錄을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했다. Anderson 여사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遡及國家書誌에 관한 문제이며 현재의 UBC 프로그램은 最新國家書誌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음을 알려주었다.

필리핀대표가 아시아서지라든가 하는 식의 地域書誌를 편찬할 계획이 있는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연단에서는, 國家書誌는 본질적으로 그 나라의 문제이며, 特定地域에서 출판된 자료를 국제기관 혹은 기타기관이 포함시키는 것은 순전히 국가서지기관이 관여할 사항 이라고 대답했다.

(2) 基準과 東洋에서의 적용

독일대표는 IFLA의 기준은 東洋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한국대표도 IFLA가 기준을 제정하기에 앞서 각국에 그것을 보내어 연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평에 대해, 가능한 한 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후에 기준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ISBD (M) 초안은 미국과 유럽에 의해 작성되었으나, 현재는 서구국가 밖에서도 전문가를 초치하여 기타 자료의 ISBD를 준비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싱가폴대표는 ISBD(M)을 국가서지작성에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다언어출판물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아직까지는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다고 했다. 카나다대표는 ISBD(M)을 標準化의 근본적인 시도라고 표현하였으며 이는 檢索目的을 위해서 근본적이며 매우 실질적인 것이라고 했다. 많은 대표들이 일부 東洋資料는 그 目錄에 있어서 西洋目錄傳統과 英美目錄規則(AACR)과는 다르며, 이때는 書名記入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미국대표가 그같은 자료를 書名아래 目錄하는 것을 찬성하면서, 이점에 있어서 AACR이 改正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 Anderson 여사는 AACR은 국제목록규칙이 아니나 國際的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인정했다. 이에 관련하여 호주대표는 東洋資料에 서양중심의 분류를 적용할 때 생기는 부적당한 점을 韓國十進分類表(KDC)나 日本十進分類表(NDC)에 반영시키고 있는가를 물었다. 具교수는 KDC나 NDC가 다 DDC를 토대로 하여 필요한 조목을 확장한 것이며, 한국 主題名標目表는 씨어즈주제명표목표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라고 답했다.

토의내용을 총괄해 볼 때, 기준 혹은 체제, 규칙의 대부분이 西洋爲主이기 때문에 東洋의 여건과 요구에 주의를 기울여서 修正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3) 1977년 國家書誌大會開催計劃

미국대표는 어떠한 점에서 국가서지대회의 참가대표가 國家를 代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Anderson 여사는 1977년 대회는 유네스코에 의해 조직될 것이며, 現下 國家書誌의 代表가 초청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國家書誌의 編纂 혹은 出版에 책임이 있는 개개인이 참석하도록 초청될 것이다. 그 대표는 國家書誌에 관한 토의 사항에 대하여 決定權 및 投票權을 가질 것이며 대회토의를 위해 많은 學術論文이 현재 준비단계에 있음을 주지시켰다. 뒤이어 카나다대표는 出版物內目錄作成(CIP)이 그 대회의 토의사항에 포함될 것을 제의했다. 유네스코 후원을 받는 그 대회의 提案은 國家水準에서 효과적으로 實行될 수 있으리라는 그의 의견을 밝혔다. 그리고 미국대표는 아시아국가대표들에게 그 대회에 참가하여 그들의 要求事項과 必要要件에 대한 發言權을 강력하게 행사하도록 촉구했다.

◉專門會議 B 報告

東洋出版物의 書誌統制——東洋資料의 編目

의장 : Dorothy Anderson
서기 : Poori Soltani

전체회의 B의 의장은 Dorothy Anderson 여사였다. 주제발표자와 논문제목은 다음과 같다.

1. Thomas Clarke, 영국, IFLA UBC 사무국 간사, "目錄作成에 있어서의 國際標準"
2. J. McRee Elrod, 카나다, British Columbia 대학, "東洋資料에 대한 國際目錄基準의 適用——多言語藏書에 있어서의 ISBD (M) 適用"
3. Christiane Rageau, 불란서, Bibliothèque Nati-

onale, "佛蘭西圖書館에 있어서의 東洋資料의 編目"

4. Hiroshi Tanabe, 일본, 千葉大學, "日本에서의 東洋資料編目"
5. Saad M. El-Hagrassy, 에집트, 의회도서관, "ISBD(M)의 아랍어 出物에의 適用"

회의진행중에 대두된 질문과 논평을 아래와 같다.

Margaret Fung 대만대표는 아시아국가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적용될 ISBD(M)의 필요성을 제의했다. 관계국들이 모여 그들 요구에 맞게 ISBD (M)을 개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Anderson 여사는 이미 여러국가에 적용되고 있는 1974년의 ISBD (M) 내용을 현시점에서 토론한다는 것은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현재 준비단계에 있는 다른 자료의 ISBDs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 순자 한국대표는 한국도서관에서는 日本語와 漢字를 다루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음을 언급하고, 韓國, 日本 및 中國語 資料를 相互排列하기 위해서 漢字를 사용하되 읽을 때는 그나라의 말을 사용한다고 했다.

Tanabe씨는 言語別目錄이나 파일을 많이 두는 것보다는 그러한 排列方法이 좋다고 동의했다.

Sungha Kim 미국대표는 東洋圖書의 卷末刊記는 저자와 서명을 제외한 모든 중요한 정보를 주는 출처이므로 ISBD (M)에서는 이 점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Kyung Soon Namkoong 미국대표는 미국도서관에서는 日本, 中國 및 韓國語資料를 다룰 때 그 主題名標目만 그 나라 언어로 주되, 이들 세가지 자료를 모두 한 문자로 다루어 사용하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Thomas Lee 미국대표는 東洋目錄作成者들이 한데 모여 東洋資料 ISBD를 만드는 생각은 좋은 것이라고 찬성을 표했다. 한편 基準은 한 집단에 의해 제정되어 이를 다른 집단에 강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조심성있게 임해야 한다는 그의 생각을 밝혔다. 나아가 英美目錄規則(AACR) 편집자들이 著者問題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들어 著者標準化에 대해서 IFLA가 유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리고 東아시아研究院은 ISBD(M)이 西洋目錄作成者中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Anderson 여사는 國家委員會의 研究結果가 國際委員會에 보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의했다. 이에 Lee 씨는 4페이지에 달하는 연구결과가 AACR에 보내졌었다고 알려주었다.

미국의회도서관에 있는 Joseph Howard씨는 東洋司書들에게 그들의 국가문제가 전달되지 않았다고 해서 世界와 경쟁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서 그는 LC는 다른 나라에 대해서 결코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으나 그러한 의도와는 달리 여러나라의 도서관이 LC의 착안을 시행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LC에서 실행하는 Shared cataloging 프로그램은 매우 유효한 것임을 지적한 후, LC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다른 나라에 확대시켜서 여기에 참가하는 나라는 그 나름대로 著錄과 著錄形式을 택하도록 했다. 이렇게 LC는 다른 나라의 결정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영국, 호주 등 여러나라의 MARC 테이프를 받아들이고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보다 유익하고 정확하며 싸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대신 우리는 미국출판물에 대해서 시간과 경비를 활용할 수 있는 한편 다른 나라는 自國語資料問題를 해결할 수 있다. LC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의 현명한 활용을 시도한다고 논평했다.

Elrod씨는 AACR 준비위원회가 左行筆記法을 사용하는 언어의 경우 右向形態句讀點使用을 허용할 것을 제의했다. 그는 카나다 서부와 동부의 出版物內目錄作成(CIP)을 예로 들었다. 어떤 도서관은 出版者를 구분하여 여기에 맞게 CIP 記入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다른 나라도 이 예를 따르도록 제의했다. 그러나 IFLA는 그 계획의 일환으로 CIP 프로그램의 國際基準을 개발하며 UBC에 관심있는 나라에서의 CIP 프로그램 적용을 강력히 권장해야 한다고 결의되었다.

필리핀도서관협회장 Candida C. Agcaoili 여사는 필리핀人名이 AACR에서 취급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Anderson 여사는 그것은 필리핀圖書館人들이 해결한 후 그 결과를 IFLA에 보내서 포함시키도록 제의했어야 하는 국가문제라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Clarke씨는 필리핀대학이 그 문제에 관해서 연구를 했으며 그 결과가 최근에 UBC事務局에

추심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Anderson 여사는 모든 나라가 人名典據目錄을 제공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한국주재 영국문화원에 있는 한 순정씨는 특히 主題名標目表가 없기 때문에 CIP를 준비하는 데에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Elrod씨는 따라서 DDC나 UDC의 分類番號를 사용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專門會議 C 報告

東洋資料의 圖書館 利用者

의장 : 이 만 갑
서기 : Karl Lo

전문회의 C의 의장은 서울대학교 이 만갑 교수였다. 여기에서 발표된 논문은 :

1. UAP에 대한 IFLA의 計劃——出版物의 世界的 利用 可能性, Peter Havard-Williams (영국) 발표
2. 東洋에 있어서의 公共圖書館 利用者, Timothy A. Chow (홍콩) 발표
3. 토론토의 中國人 圖書館 利用에 관한 問題點과 그 解決方案, Kaye Kishibe (카나나) 발표
4. 公共圖書館과 地域社會奉仕, Hedwig Anuar (싱가폴) 집필
5. 司書의 立場에서 본 獨逸의 東洋資料利用, Alfons Dufey (서독) 발표
6. 利用者의 立場에서 본 東洋資料利用, Wolfgang Bauer (서독) 발표

W. Tsuneishi (미국) : 國際圖書館相互貸借規則의 제정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Havard-Williams: 정말로 어려운 점은 없다고 봅니다. 원칙적으로 좋은 착안입니다. 이 착안을 IFLA에 제출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읍니다.

P. Poon (홍콩) : Chow씨는 IFLA가 東洋資料에 관한 基準을 출판할 것을 제의했읍니다. 우리는 확실히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東洋人에 의해 고안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Kishibe씨가 그의 논문에서 홍콩의 書誌不足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이에 관해서 이야기하겠읍니다. 홍콩에서 출판된 도서의 季刊目錄이 나오고 있으며 編纂者는 Chow씨입니다. 그리고 자유중국에는 臺北에서 출판되는 月刊 受入目錄이 있읍니다. 중공에는 國家書誌가 있으며 Bishop 여사가 그녀의 발표논문에서 다루었읍니다. Kishibe씨에게 질문하겠읍니다. 中國圖書 蒐集目標 4,000권은 어떻게 산출한 숫자입니까? 토론토시의 중국인의 요구책수입니까? 또 그 숫자는 몇 개의 書名을 나타냅니까?

Chow: 기준이 東洋에 의해 제정되어야 한다는 Poon씨의 제의에 동의합니다.

Kishibe: 參考書誌에 대한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해서, 토론토시립도서관의 外國語資料에 대한 기준은 없읍니다. 그리고 논문발표시에 8,000명 이용자를 대상으로 봉사한다고 했읍니다. 4,000권의 책이라면 書名數로는 1,000이 조금 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진숙(한국) : 토론토에는 한국인이 많읍니다. 이들을 위한 册을 所藏하고 있읍니까?

Kishibe: Robert Yu씨가 이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Robert Yu (카나다) : 토론토시에는 한국인이 2만명 가량 살고 있읍니다. 저희 도서관 (토론토시립도서관)에 있는 한국도서수는 300권 정도입니다. 디일러를 통해 정보를 얻고자 퍽 애썼으나 구하지 못했읍니다. 이번 大會를 빌어서 제의하건데, 고국의 도서관인이 믿을 수 있는 디일러를 선정해주고, 이들이 보다 많은 목록을 작성하여 보내주어 재외동포들이 모국의 소식을 전해 듣도록 해 주십시오. 비지네스를 떠나 재외동포에게 그리고 그들의 후손에게 文化를 繼承시킨다는 의의

에 입각하여 그렇게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이번에 고국에 온 것은 도서관위원회가 2주일의 출장을 보내면서 서울大會에 참석하고 또 交換프로그램, 믿을만한 디일러選定 등 韓國圖書購入과 蒐集을 잘 수행하도록 했읍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토론토시는 확실히 韓國人社會에 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정 상태(한국) : Dufey씨가 속해 있는 도서관에는 이용별, 국적별, 주제별 등에 의한 統計가 나와 있읍니까?

Dufey: 매우 죄송합니다만 그러한 統計는 없읍니다.

Bishop (호주) : Bauer씨에게 두가지 질문이 있읍니다. 첫째, 학무직원이 도서관직원에게 새로운 학술연구 프로그램에 필요한 資源에 대해서 통지하도록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둘째, 대학교의 자율과 관련해서 어제의 발표논문 중에서 다루었던 바와 같은 調整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auer: 우리는 국내에 있는 자료를 評價하도록 노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학자도 있을 것이며 또 시작하자마자 중지하는 학자도 있을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協同은 중요한 것이며 앞으로는 협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J. M. Elrod (카나다) : 동양국가의 대표들이 그들의 圖書館相互貸借와 交換에 대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 영숙(한국) : 5년전에 이화여대도서관에서 일을 했읍니다. 그때 이대도서관은 세계 여러 기관과 매우 활발한 資料交換을 하고 있었읍니다. 연세대학과 고려대학도 활발한 교환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만갑(의장) : 서울대학교도서관은 다른 도서관 특히 國內의 도서관과 資料交換을 보다 활발히 수행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Chow: 홍콩에는 홍콩내의 모든 도서관상호간에 無料 圖書館相互貸借規定이 있읍니다.

이 태우(한국) : Dufey씨에게 4가지 질문이 있읍니다.

(1) 複寫의 경우 法的 版權問題가 없읍니까?
(2) 校外의 이용자에게도 複寫奉仕를 합니까?
(3) 韓國語圖書의 봉사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서관과 출판자에게 부탁하고 싶은 점은 무엇입니까?
(4) 독일에서 이용할 수 있는 鑛術에 관한 자료는 어느 정도입니까?

Dufey: (1) 대만과 중공의 旣刊 및 新刊 出版物을 複寫하고 있으며, 法的 問題에 부닥친 적은 없읍니다. 學術目的에 限해서만 복사합니다.

(2) 敎授資料로서 필요로 하는 특정기관에게는 책을 복사하도록 허용합니다.

(3) 불행하게도 독일이나 유럽에서 한국어를 해득할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작으나마 나의 경험을 토대로 볼 때 책에 유럽語 抄錄을 포함시켜 유럽학자가 한국학자의 연구에 대해 보다 많이 알 수 있도록 할 것을 권장합니다.

(4) 중국어와 영어자료의 飜譯은 있읍니다. 한국자료의 번역이 있다고 확언할 수 없으며, 또 그 숫자도 알지 못합니다.

●專門會議 D 報告

國際意思疏通——表記와 로마자화

의장 : J. McRee Elrod
서기 : T. Clarke

발표논문과 발표자는

1. 日本에서의 解決方案——機械化에 따른 問題點, Yasumasa Oda (일본)
2. 韓國에서의 解決方案, 이 재철(한국)
3. 文字의 表記와 世界文獻統制, Hans H. Wellisch (미국)
4. 美國 學術圖書館에 있어서의 解決方案, Karl Lo (미국)

의장은 토의진행에 앞서 人名 및 書名의 飜譯使用과 飜字를 비교한 후 飜字의 유용성과 言語別 目錄記入의 파일 別置에 관해 직접 논평했다. 그는 서양의 東洋資料選擇에 나타나는 차이점을 강조했다. 즉 서양사서는 동양학에 관한 자료를 구입하기는 하나 기술적인 자료의 구입에는 흔히 곤란함을 느끼는데 반해, 동양사서는 서양출판물을 전체 범위에서 견주어 자료를 선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용어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나" (일본어), "한글" (한국어), "간지" (일본의 중국문자) 그리고 "한문" (한국의 중국문자)의 특징을 묘사하였고, 同音異義語와 原文에로의 復元에 관해서 설명했다.

신 현덕씨(한국)는 Lo 씨의 발표논문에 대해서 논평을 했다. 즉, 동양문자의 排列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중국과 일본, 한국은 같은 漢字를 사용하나 서로 다르게 發音하므로 세가지의 排列位置를 필요로 하는 점과 中國方言을 피하기는 어려운 점이다.

Lo 씨는 中國文字의 중국, 일본 및 한국에서의 사용으로 세가지의 다른 排列位置가 필요하더라도 資料調査에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方言에 대해서는, 로마字表記가 방언으로 표시된 同一名의 다른 형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동의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가 선택한 이름형태를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Elrod 의장은 한국도서관에서는 日本人名을 한글화할 것인가 아니면 漢文에 의해 排列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Sungha Kim 씨 (미국, 하바드 옌칭 도서관)는 미국에서 韓國人名을 로마자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한 후, 1937년에 Reischauer 로마字表記法이 급히 출현된 내력을 소개했다. 지금은 地名등에서 차이를 보여주는 文敎部表記法이 있으나 미국도서관은 1967년에 일부 개정된 바 있는 Reischauer 表記法을 현시점에서 포기할 수는 없다고 본다. 同一名에 대한 다른 표기방법을 알리기 위해 목록에 많은 相互參照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한글은 字母文字이므로 排列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중국어는 單語順으로, 일본어는 字順으로, 한국어는 音節順으로 배열된다. 이렇게 서로 달리 배열되는 세가지 자료를 統合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끝없이 일어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Tsuneishi 씨 (미국, 의회도서관)는 Suzuki 씨 (일본, 국립의회도서관)에게 일본밖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Hepburn 表記法을 허용하여 절충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다.

Suzuki 씨는 ISO (國際標準化機構)는 아직 Kunrei를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 Kunrei는 公式表記法일 뿐만 아니라 行政訓令에 의하며, 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일본도서관에서 사용할 것이다. Hepburn은 國際的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밖으로 나가는 글자에 사용되고 있다고 했다.

Oda 씨 (일본, 국립의회도서관)는 그의 논문에 Kunrei 역사를 적고 있으며, 일본 MARC에 쓰인 Kunrei는 기계화작업에 의해 Hepburn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의장은 시스템이 바뀌거나 혹은 새것이 나올 때에 遡及轉換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費用에 대해서 설명했다.

Gordon Kirby 씨 (호주, RMIT 도서관학과)는 Hepburn은 西洋式 表記法이며, 동양도서관이 서양의 편의를 위해 목록을 만든다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했다. Hepburn 使用 終熄日字를 정하고 그에 따른 目錄作成을 중지시킨다면 Kunrei가 서양도서관에 소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o 씨는 이것은 國際意思疏通에 도움이 되는 것이나 도서관이 만일 資料疏通을 할 의사가 없다면 국제기준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장은 동양도서관에서는 다른 文字를 사용할 수 있으며 또 西洋出版物과 로마자目錄記入에 익숙하기 때문에, 아마도 로마자表記를 필요로 하지 않으리라는 그의 관찰을 말했다.

Fung 여사 (대만)는 中國語飜字에 있어서 숫자를 사용하는 Four-Corner System을 설명했다.

A. Rydings 씨 (홍콩대학)는 홍콩의 경우처럼 人名飜譯이 사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飜譯된 團體名標目의 典據파일이 편찬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물었다.

Anderson 여사 (IFLA UBC Office)는 그와 같은 제안이 10년전에 失敗되었음을 상기시켰다. 각국이 最終人名形態를 결정하여 확립시켜야 한다고 의사를 밝혔

다.

Zerb 여사 (스위스)는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Libraries의 계획으로 모든 政府相互間機構의 公式名稱이 一覽表로 작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태우씨(한국)는 1956—57년에 한국정부는 280여개의 한국인 姓의 로마자표기에 관한 팜플렛을 간행했으며 이것이 모든 경우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제의했다. 中國語를 위한 Wade/Giles 表記法을 널리 사용할 것도 아울러 제의했다.

의장은 동양인명의 順序에 관해서 姓이 항상 제일 먼저 온다고 설명하고 외국인의 편리를 위해서 간혹 이름순서를 바꾸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 재철(한국)씨는 한국정부는 韓國地名 로마자表記에 대한 안내서를 발간한 바 있다고 밝혔다.

Fung 여사는 동양인명 로마자화의 경우 姓을 확실히 나타내기 위해 흔히 하이픈을 사용한다고 했다.

Lo씨는 母國로마字表記法이 과연 더 우수한가를 묻고, 오히려 여러 표기법 중에서 보다 實用的인 사항을 택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의장은 토의사항의 결론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 문제점과 譯字보다 原形復元의 어려움에 관해 요점을 개괄하였다.

●閉會式 報告

Dia van Vliet-Posthuma
IFLA 事務局 行政部長

1976년 6월 4일, 金曜日, Preben Kirkegaard IFLA 會長이 IFLA 서울大會 閉會式을 주재하였다. 이어서 組織委 프로그램 擔當委員이 폐회이후의 외국 대표를 위한 일정에 대해서 공지사항을 발표한 후, Dorothy Anderson 여사 (영국, IFLA UBC 사무국)가 이번 大會에서 발표된 논문과 토의사항을 개괄하여 요약했다.

그다음 Joseph S. Soosai 씨 (말레이지아, Chairman, IFLA Regional Development Group for Asia)가 會議場에서 決議文을 낭독했다.

Kirkegaard 聯盟會長이 會議場에 있는 대표들에게 그밖에 추가할 決議事項이나 提案이 있느냐고 물었으며, 이에 Heihachiro Suzuki 씨 (일본)와 Maenmas Chavalit 여사 (태국)가 발언했으며 그 내용은 會議錄에 남기기로 한다.

J. McRee Elrod 씨 (카나다, British Columbia 대학 교도서관)는 Dorothy Anderson 여사와 Thomas Clarke 씨 (영국, IFLA UBC 사무국)가 이번 서울大會에서 세운 공적에 대하여 경의를 표했다.

Kirkegaard 聯盟會長은 서울大會組織委員 전부에게 사의를 표했다. 이어서 IFLA 大會가 처음으로 개발도상국가에서 개최된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李瑄根 組織委員長에게 IFLA 메달을 증정하였다. 그리고 李 鳳順 副委員長, 朴 啓弘 프로그램擔當 組織委員 및 朴 大權 組織委員會事務局長에게 각각 기념품을 증정했다.

이번 大會를 成功的으로 수행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은 尹 龜鎬 儀典擔當, 具 滋榮 弘報擔當, 金 宗會 登錄 및 案內擔當, 金 海龍 觀光 및 輸送擔當 組織委員과 그밖에 組織委員會 要員 여러분에게 사의를 표했다.

그리고 Dorothy Anderson (영국), Hedwig Anuar (싱가폴), 朴 啓弘(한국), Joseph Soosai(말레이지아), Yukihisa Suzuki (미국) 등 議事諮問委員과 이번 大會를 위해 열심히 일한 이름을 알 수 없는 그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일일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